

# “장애인은 절에 갈 수 없나요”

## 사찰 경사로·미끄럼 방지턱 등 편의시설 태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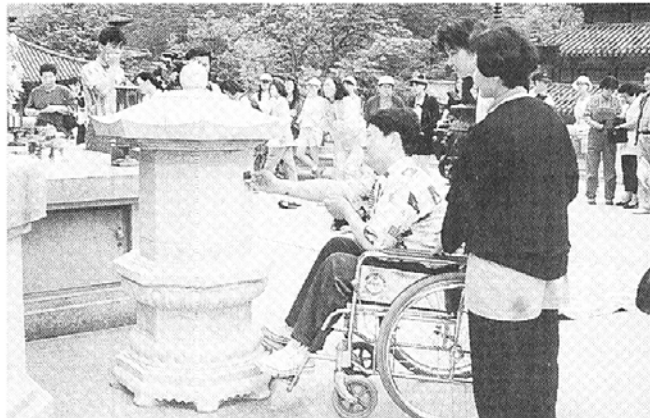
### 4월 장애인의 달

단지 몸이 좀 불편할 뿐인 장애인들도 사찰과 포교당을 찾아 신명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1백1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85%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의한 후천성 장애를 겪고 있다.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불교계는

씨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장애인이 사찰이나 포교당을 찾을 때면 으레히 겪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정무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시각 또한 부정적이어서 사찰을 찾는 장애인들의 가슴을 때때로 아프게도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지리와 풍경을 배우며 실현하는 불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것



△ 장애인들은 사찰 및 포교당을 언제나 부담없이 드나들며 신명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 전통 사찰 개보수 제약

### 장애인 종교생활 “불교 4.8%”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장애인도 엄연한 일불제자(一佛弟子)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사찰시설로는 최소한의 신명생활조차 하기 힘들다. 경사로 및 장애인전용 화장실, 미끄럼방지 시설의 설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저도 예전에는 두 발로 법당을, 사찰을 오갔습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은 혼자 부처님을 뵈러 절에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사찰의 계단을, 법당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난해 3중 추돌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된 수원리 고성희보살(34). 고씨가 토로하는 이같은 애로점은 고

같아요. 법당을 찾는 장애인들 때로는 혐오스러워 하기도 하니 불자들의 의식은 오히려 뒤걸음질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찰을 찾고자 하는 저 같은 불자장애인들의 눈에는 불교가 ‘장애인들은 죄인 취급하는 종교’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고 한마음장애인회 김관석 씨(소아비비)는 말한다.

한국개발조사연구소 조사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이 종교를 원하는 비율은 83.3%에 다다른다. 실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79.5%나 돼 일반인들의 종교생활 46.3%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런데 종교 유형별 분포를 보면 캄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불교가 4.8%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

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며 그들의 편의와 신명생활을 위해 장애인 포교당에 원을 세운 선진스님은 “장애를 업으로 해석하는 일부의 그릇된 장애인관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사로, 화장실, 미끄럼 방지턱 등 사찰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배려가 인색한 스님들의 의식부족 탓이죠”라며 불교계의 복지현실을 지적한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포교당 및 사찰이 전무한 현실을 감안,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오는 20일 총무원 청사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한다. 또 총무원은 중산 산하 사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

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교계는 이를 계기로 사찰 및 포교당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전통사찰 및 문화재 지정 사찰, 도심 빌딩 속의 포교당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 임대 시설이라 임의로 개보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름살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깊은 시름을 주의깊게 배려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사업에 한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필선 기자

## 만화 \*올바른의 장\*

# 법구경

법구경



랑승만 씨 (시인)

###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위해 사는 삶

그가 최근 절망에 빠져 있는 장애자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두번째 서화전을 마련, 교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돕기 및 장애인법당 건립기금 마련 바라림 시사회전’을 이날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 중앙문화센터(74-4412)에서 개최하기 때문이다.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훈훈한 세상만들기를 위해 몸을 지팡이

“남을 도우면 나도 기쁘니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라없이 장애인의 몸으로 장애인들을 도우는 택시운전기사 윤병조씨(33). 후천성 루마치스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윤씨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택시회사를 다니며 3년 동안을 비변날이면 장애인들을 위해 관공서, 병원을 가리지 않고 보살행을 펼쳐온 숨은 일꾼이다. 윤씨는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자



윤병조 씨 (택시기사)

### 장애문인 키우며 법당마련 ‘꿈’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내뱉는 주위사람들의 한마디로 인해 밤이 새도록 생사의 벽을 수만번 넘나들고 눈물의 바다에서 방황하는 장애인들.

반신불수의 몸으로 16년 동안 좌절과 생활고 속에서도 원고료를 톡톡 털어 장애문인 꿈나무들을 격려해왔다. 문집을 내고 등단을 도모하고 의약품을 보시하는 것을 낙으로 삼아온 시인 랑승만 씨(63).

에 의지해 전곡을 다니는 그는 요즘 장애인들이 법당가목 모여 기도정진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때그때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을 뿐 장애인들에게 참된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라며 “장애인들을 위한 법당을 꼭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두번 울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쉬는날마다 ‘부름의 전화’ 봉사

신의 유일한 ‘취미활동’이라고 말한다. 봉사활동을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며 장애인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남들 앞에 내세울만한 것이 못된다는 윤씨의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인 것이다. TV를 통해 인연이된 부름의 전화에서 요청하는 일인원 반쯤이 장애인들의 손발이기를 자처하는 윤씨. “관공서에 불일이 있어 도움을 요청한 한 여자가 맹인이 자신을 보살펴 주는 제가 고마

웠던지 저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 주셨다며 대뜸 제 다리를 더듬더듬대는 바람에 황당할 일을 겪는 등의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는 그는 장애인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자신의 지친 몸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고 귀띔한다.

“장애인은 운명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느날 갑자기 장애라는 몹쓸 눈이 찾아왔을 뿐, 여러분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고 지적한다. <선

###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관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광고전용용품
- 정보통신, 소식
- 저서 홍보
- 안내
- 각종 행사
- 신상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 (광고국) 팩스 (02)737-0697

###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교육내용: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소: 건강연구원, 임구정역 543-7306

### 일 할 곳을 찾습니다

30대 중반의 솔과 담배를 정대로 하지 않는 독신 남자로 시골에서 운전기사로서 최상급 일할 곳을 찾습니다. 운전차량은 1중 대형트럭이며 지방 사찰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찰은 저렴한 보시로 봉사하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351) 41-1152 박성훈  
주간에 전화 받지않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 거승 동양화 화실

거승 철학원(운영 조인)

서울시 용산구 청라 1가동 140-3 (홍신빌딩 308호)  
전화(02)3273-0081

진품 배려 맞은 대우나무(도장, 부적재로) 진품 식별 및 진품 공개!

### 조림식 건물(주택) 경량 칸막이 시공

칼라·아스팔트·싱글

전화 (053) 742-7855  
015-717-7792  
011-532-8454

(주) 신 화 개발

###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립 6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울림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희사 범종제작 및 대표자를 실력 다수  
범종주조 聖鐘社 대표 元光植(檀山)장상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정)

###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정 직영 삼보기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대원사

경기도 용인군 수지구 성북리 393-1  
T. 0331-281-0606 F. 0331-282-1577

### 선관단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자신적 특성을 기어-공복감이 없다
- 수련장
- 조식, 복복차, 발문, 차연동, 식음선단법 결심
- 사선지(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결심
- 수련내용: 일일수련, 선안수련, 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받고 나면 생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서 세포노화예방 효과
- 선관단식수련을 받고 나면 생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서 세포노화예방 효과
- 선관단식수련을 받고 나면 생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서 세포노화예방 효과

문의 (02)737-8881 (광고국) 팩스 (02)737-0697

###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2년2회 실시 4월·8월

국고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함께 중이된 핵심 「강의해설교재」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고교 졸업과정 ○ 철저한 1:1 「담임 관리제」  
대학 졸업과정 ○ 한글 숙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문의 (02)766-9090

### 결정 국졸·중졸·고졸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신원희(72세, 할머니)·중·고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중·고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중·고·대과정(36개월)

특전: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영·수)「비디오강의」(4945분)  
【 철저한 학습관리! 】 전화접수 (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수·화)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학습집 제공

상당전화(비밀보장) (02)766-9090 (저녁 9:00까지 접수)

(수신자 부담) 크로바비비스 080-023-4600